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9년 11월

선교편지 제 125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선교사들이 사역지에 처음 부임하면 소위 '선교의 허니문 기간' 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즉, 짧게는 3개월에서 약 일년여간 부임한 선교지를 알아 갈 때,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과 현지인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신혼 초기의 허니문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단기 선교를 오신 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여 현지인들을 섬기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내어 주고 싶은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저희들의 선교 허니문 기간이 꽤 오래 지속되어, 이웃 선교사들이 자주 경험하며 힘들어 하는 현지인들과의 갈등을 이해하기 어려웠었습니다. 현지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교의 허니문 기간이 마침내 무참히 깨어지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성전 건축' 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렇게도 원했던 디고스 예일교회의 성전 건축을 선교지 부임 6년 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부지 구입을 위하여 거의 일 년여간 인근 지역을 샅샅이 살피면서 수 많은 토지주인과 중계인을 만났고, 부지 구입 이후 설계 및 건축 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수 많은 공무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선교사로서 지금까지 만났던 현지 주민들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위 '돈과 특혜'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보니,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현지의 민낯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건축을 위한 복잡한 행정 절차를 마치고, 마침내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공 업체를 구하는 문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건축 전문 시공 업체들을 통하여 견적을 받았는데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가격들이어서, 건축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이지만 제가 직접 건축 노동자들을 모집하여 대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험이 제일 많은 자를 책임자로 세우고, 토목, 미장, 철공 등 15명이 분야별로 맡은 일을 열심히 감당하며 순조롭게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건축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 사고를 대비해서 안전 모자, 신발, 장갑을 제공하고, 보험도 가입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들은 이곳에서는 매우 낯선 일들이지만, 작업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어서 조금도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작업을 하는 현지인 노동자들도 하나님이 맡겨 주신 선교 대상자로 알고, 처음부터 잘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기도하며 일을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마치었습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 마다 풍성한 음식으로 수고를 위로하는 대접을 했습니다. 작업자들이 살고 있는 열악한 마을까지 방문해서, 그 마을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마을 공동 펌프도 설치해 주는 등 여러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진행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작업자들로부터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작업 책임자는 제가 현장에 없으면 전혀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 건축 자재를 빼돌려 집으로 가지고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마다 술을 마시고 다른 작업자들과 싸우고, 작업자들과 돈 관계가 복잡해지는 상황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교회 건축이 제대로 될 지 염려가 될 정도였습니다. 밤마다 피곤해서 잠에 골아 떨어지지만, 어김없이 새벽 2시면 눈이 떠집니다. 근심과 기도로 밤을 지새우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준공을 앞둔 두 달 전에 마침내 작업 책임자를 해고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때부터 작업 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한번도 건축 경험이 없는 제가 나머지 인원으로 마지막 공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나머지 작업자들이 동요하지 않고, 끝까지 잘 따라와 주어서 작업 책임자가 있을 때보다 훨씬 순조롭게 완공을 향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전 작업책임자가 오토바이 사고로 인하여 본인과 부인이 심하게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작업자들은 한결같이 교회 건축을 어렵게 한 그 작업책임자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으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 소식 이후에 작업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교회 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성전 건축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누려왔던 '선교의 허니문'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작업 책임자의 이야기는 일부분에 불과하고,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현지인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정도였습니다. 성전 건축 이후, 정말 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 정도로 지쳐 있었는데, 매주 교회로 오는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중에 그동안의 어려웠던 생각들은 어느덧 치료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또다른 선교의 허니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성전을 건축하며 겪었던 어려움은 이미 웃으며 회상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교회가 더 많이 건축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작년부터 사역을 시작한 아팔라야 지역에 새로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주의 예비하신 종을 통하여 교회 부지를 구입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설계, 건축 허가, 전기와 수도 설치 등 건축을 시작하기 전까지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하고, 교회 건축은 또 어떠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아팔라야 교회 건축이 순적하게 진행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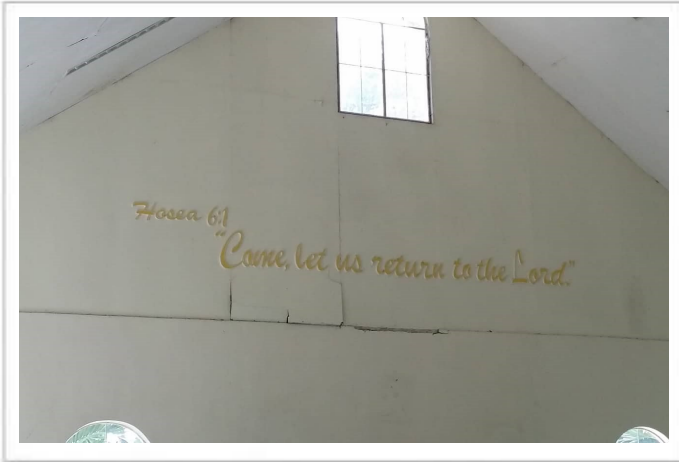
요즈음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인근 30 Km 지역
에서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3회 발생하였고, 100회 이상의 '여진'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디고스는 이미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었고, 디고스와 다바오 지역의 모든 학교와 관공서
는 2주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곧 이어 '8.0의 더 큰 것' 이 닥칠 거라는 소문으로
그야 말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디고스 내의 벽돌로 지어진 건물들은 대부분 여러 모양
으로 손상 되어서, 추가 붕괴를 대비하여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와 관공서 건물들이 많
은 타격을 입었고, 심지어 최근에 건축된 현대식 건물들도 붕괴 직전입니다. 상점은 위험한 실내에서 나와 길
가에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하고 있어서, 전혀 새로운 모습의 디고스가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반살란과 막사이사이 라는 지역은 두 번째 6.7의 지진이 직접 발생한
곳으로, 그 피해 정도가 더욱 심합니다. 디고스예일교회 장학사역에 속한 '메리안'이라는 여학생의 아버지는
막사이사이에 있는 작은 현지 교회를 시무하고 있는데,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완전히 붕괴되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디고스예일교회의 벽에 균열이 생긴 것도 가슴이 아픈데,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경험한 목회자와 교인들의 아픔이 얼마나 클 것인가 생각하여, 구호품과 교회 재건축을 위한 헌금을 들고 두
번 방문하여 위로를 했습니다. 그 지역을 지나는 중에 수 많은 이재민들이 텐트를 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을 도저히 사진으로 담기에도 미안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디고스예일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수습이 되는대로 자체적으로 구호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디고스예일교회도 건물 여러 곳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예배당의 스피커와 어린이 예배실의 TV가 떨어져서 파
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주 수요일 예배는 예배당 밖에서 드렸습니다. 2주전 수요일 예배 중에 지진이 발생하
여, 모두들 당황하며 대피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시각에 예배당 안으로 들어 가는 것을 주저하
게 되었습니다. 교회 내의 사택에서 기거하는 현지 교역자들도, 방에서 지내기가 편치 않아서, 교회 마당에 임
시로 텐트를 치고 밖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마치 난민 숙소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비상 사태를 대비
하여 중요 물품 등을 별도의 가방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지진이 발생할 때 마다 떨기가 느껴질 정도로 흔들림
이 심해서, 많은 것들을 깊게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입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금년은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디고스예일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텅기 열로 고생을 했었는데 모두 다 완쾌가 되었고, 저와 제 아내도 뒤 따라
서 텅기 열에 걸렸었는데, 많은 분들의 기도로 빠르게 회복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아팔라야 지역
선교를 시작한지 2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구입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
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주변 환경은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 감사의 달에 디고스예일교
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보
호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이 이곳 선교지를 온전히 덮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 41:10)**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57-10 226th St. 1F. Bayside, NY 11364

